

2026년 4월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

'26. 4. 30.(목) / 쿠알라룸푸르지사

- **중동 갈등 여파로 산업계는 코로나19 시대 수준의 지원 정책 도입 요구**
 - 중동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이해관계자들은 대출 채무 동결 등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
 - 중국상공회의소측은 갈등이 몇 개월 더 지속되면 그 효과는 팬데믹과 같을 것이라며 물류비 상승으로 일부 재료 조달이 어려울 수 있고, 원가 상승이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
 - 제조업협회 역시 노동자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여 업계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 우려되며, 공장 버스 운행에 대한 디젤유 보조를 연장해준다면 비용 절감 및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

- **관광청, 방문의해 관련하여 필하모닉홀 및 오케스트라와 파트너십 체결**
 - 페트로나스 필하모닉 홀(DFP)과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(MPO)는 말레이시아 관광청과 협력하여, 예술과 문화 분야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방문의해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를 관광 목적지로서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파트너십을 시작
 - 이 파트너십을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인과 관광객을 위한 매력적인 티켓 할인과 공연장 투어를 포함한 상품성 있는 패키지도 기획될 예정

- **관광기업 Golden Destinations 상장 후 안정적 성장 예상**
 - 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Golden Destinations에 대해 한 증권사는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, 싱가포르 진출, 중동 갈등 후 여행 수요 증가 예상을 기반으로 향후 3년간 CAGR 6.9% 수준의 성장을 예상함
 - 분석에 따르면 GD의 전체 매출 중 중국이 36%, 기타 아시아 시장이 40%를 차지해 유럽 비중이 적은 점, 중국의 말레이시아인 비자 면제 조치로 인해 중국 방문이 늘어나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봄
 - GD는 말레이시아 해외여행 시장의 약 15.5%를 점유하고 있으며 핵심 사업은 여행 패키지 기획 및 판매업임으로, 전체 매출의 73%를 차지

- **말레이시아항공 중국 2개 도시 신규 취항 및 일본 후쿠오카 노선 재개 등**
 - 말레이시아항공은 중국의 선전(7월 1일), 창사(7월 8일)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, 일본 후쿠오카 노선도 재개(9월 2일)한다고 발표
 - 이로서 말레이시아항공이 취항하는 중국의 도시는 9개가 됨
 - 이중 후쿠오카 노선은 B737-8 항공기로 시작하지만 수요가 충분하다면 더 큰 기체인 A330neo로 교체 운항할 계획
 - 또한 브리스베인, 마닐라, 콜롬보 운항 횟수를 늘리고, 중동 분쟁으로 인해 환승이 불가능해진 유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런던 운항도 확대함

- **슬랑오르주, 고유가 대응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 개시 및 해외출장 중단**
 -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연료 소비 및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4월 15일부터 공무원이 매주 화~목요일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
 - 또한 모든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중단하되, 투자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한 출장은 지속 실시

- **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사업, 2027년 말까지 연장**
 - 정부는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사업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하고, 항공 및 호텔 산업이 에너지 위기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과하게 받지 않도록 손실 정도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발표
 -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말레이시아가 선제적으로 홍보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 변화에서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를 안정적이며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목적지로 인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

- **디젤유 가격 상승으로 운송 업자 폐업 위기 호소**
 - 정부의 디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,000여 개의 버스 운송 업자들은 보조금이 대형 관광 업체에 집중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, 이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면서 폐업 위기라고 호소하며, 보조금이 없다면 동해안 지역의 관광버스 운행은 두 달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발표
 - 버스와 밴 운송 업체들은 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, 고속버스들과 유사하게 월 4천에서 6천 리터의 디젤유 보조금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
 - 한 업체는 현재 디젤유가 리터당 6.02링깃이 되면서 운영 비용이 25~40%까지 상

- 승했는데, 보조를 통해 리터당 2.15링깃까지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표명
-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시 받은 대출 보증으로 인해 계속 운영을 해야하는데,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업체들의 50% 이하만이 현재 생존해 있고,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 비율은 30%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함
- 현재 말레이시아반도(서말레이시아)에는 5,649개의 등록된 버스와 밴이 있고 면허가 있는 기사는 9,498명인데, 상황 변화가 없으면 운행 중단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업자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정부의 방문의해 사업 성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
- 참고로 버스 1대의 가격은 2019년 46만링깃에서 현재 76만링깃까지 상승했고, 따라서 월 할부금이 1만~1.6만링깃에 이르는데, 운행 중단으로 인해 두 달만 납부를 못해도 버스는 은행에 압류됨

○ 유가 상승으로 인해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 가격 인상 불가피

- 국영 TV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UiTM 대학 교수는 중동 갈등으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가운데, 유류비가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의 30~40%를 차지하는 관계로 마진 감소 및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
- 하지만 호텔과 교통편을 미리 예약한 관광객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, 업계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의견
- 함께 출연한 여행업협회 부회장은 투어 버스 주유비는 200링깃에서 600링깃으로, 투어밴 주유비는 60링깃에서 300링깃으로 올라 업체가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,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
-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하고 있어 국내여행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며, 최근 개최된 박람회 MATTA Fair에서도 국내관에 많은 사람이 방문했다고 밝힘

○ 내국인 동말레이시아 항공 여행에 대해 50링깃 보조금 지급 예정

- 교통부는 5월 말 및 6월 초에 동말레이시아의 사바 및 사라왁주에서 있는 축제 (Kaamatan and Gawai festival) 기간에 맞추어, 5.15~6.14. 서말레이시아에서 동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국민의 항공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링깃(약 18,500원)의 리베이트 제공 프로그램을 시행하며, 수혜자는 10만명 가량으로 예상한다고 발표
- 기존에도 해당 축제 전 3일 동안 499링깃을 초과하는 항공요금에 대해서는 정부

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추가 실시하는 제도

- 또한 항공사 직접 보조를 위해 5월 1일부터는 항공사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최소 2개월 간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지원

○ 관광부, 방콕-쿠알라룸푸르 외의 경로로 태국 항공 노선 확대 추진

- 관광부장관은 태국 출장 중 타이항공, 타이비엣젯을 만나는 자리에서 방콕-쿠알라룸푸르 노선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다 전략적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힘
- 즉 동말레이시아의 사바, 사라왁으로 확장함으로써 다수의 게이트웨이를 채택하고 허브공항으로서의 쿠알라룸푸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, 이를 통해 상호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분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
- 또한 지속 가능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 노선 개발은 말레이시아관광청, 항공사, 여행사 간 협력을 포함한 마케팅 전략과 결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
- 한편 타이비엣젯은 방콕-쿠알라룸푸르 노선을 8월부터 직항으로 운영하며 최대 1일 2회까지 운항할 계획임을 밝힘

○ 술탄이스마일 공항* 개선 후 한국 포함 장거리 노선 개설 기대

- * 말레이시아 동부 최북단에 위치하여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 코타 바루에 소재
- 총리는 술탄이스마일 페트라 공항의 개선 사업 후 주요 아세안 허브와의 국제선 직항 노선을 개설, 클란탄주의 관광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
- 공항 인테리어에서 이슬람, 말레이시아 예술 유산을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, 현대적이고 최신 기술을 갖추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홍보
- 활주로 연장 프로젝트는 2027년 완공 예정이지만 그 전에도 인도네시아, 태국 등과의 2-3시간 거리 국제선 노선 개통이 가능하며, 활주로 연장이 완공되면 중국, 한국 등 5-6시간 거리 노선도 개설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운항 횟수 증가를 위해 말레이시아항공, 에어아시아, 바틱항공 등과 협의중이며 외국 항공사의 취항도 환영한다는 입장

○ 말레이시아방문의해 연장에 따라 콘서트 등 라이브 이벤트 산업 지원 확대 추진

- 최근 관광산업 환경 악화로 말레이시아 방문의해가 2026년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, 정부는 필요하다면 라이브 이벤트 관련 사업 종사자들의 대출 상환

계획을 재검토하고 추가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

- 라이브 이벤트 및 엔터테인먼트협회측은 안전한 공연 입장권 구매를 위한 마이크로사이트 제작 계획을 밝혔고, 정부는 해당 협회를 향후 발족 예정인 오렌지경제위원회(Orange Economy Council)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함
- 또한 총리실은 쿠알라룸푸르시청을 통해 5월 1일부터 콘서트 등 공연에 대한 행사 보증금을 인하한다고 발표
 - * 국내 아티스트 : 1만 링깃→4천 링깃, 해외 아티스트 : 3만 링깃→8천 링깃
-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450건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하며, 지역 내 콘서트 및 이벤트 허브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, 이들 행사는 약 17억 2천만 링깃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
-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문화 및 창의 산업은 국내총생산(GDP)의 약 6.8%를 차지하며, 이는 1,300억 링깃 이상에 해당

○ 페낭, 중동 갈등으로 취소된 국제행사 유치 의지

- 페낭컨벤션뷰로(Penang Convention & Exhibition Bureau, PCEB)는 중동지역 갈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계획됐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옮기고 있어 국제 컨퍼런스 유치 요인이 있다고 발표
- 페낭은 올해와 내년을 목표로 총 26개의 국제 컨퍼런스를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최지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며 이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
- 반면 현재까지 분쟁으로 인해 페낭에서 취소된 국제 행사는 없고 일부 행사가 1~2개월 연기된 사례만 있다며, 중동지역에서 장소를 옮기는 행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

○ Amal by Malaysia Airlines, 이슬람 성지순례 위해 110대 항공기 투입

- 말레이시아항공의 성지순례 부문 사업부인 Amal은 2026년 성지순례 시즌을 맞아 110대의 항공기를 투입, 15,620명의 순례자를 운송할 계획으로, 4월 18일부터 55회에 걸쳐 순례객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와 제다로 운송하고, 6월 4일~30일에 걸쳐 55회 운항으로 복귀시킴
- 이를 위해 조호바루, 알로세타르, 쿠알라 트렝가누, 쿠칭, 코타키나발루 등 주요도시와의 국내 연결 항공편도 67회 운항
- 순례자들이 귀국할 때는 말레이시아항공의 물류부문 자회사를 이용, 지정 호텔에서 집으로 짐을 부치고 귀국할 수 있음

○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1분기 이용객 전년 동기 대비 14.4% 증가

-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(KLIA)은 2026년 1분기 1,690만명이 이용, 전년 동기 대비 14.4% 이용객이 증가했으며, 3월 한 달 동안 전체 국내 공항 이용객은 910만명, 그 중 KLIA 이용객은 560만명을 기록함
- 또한 1분기 중 페낭국제공항 이용객은 전년 대비 11%, 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은 2% 증가, 전체 이용객은 2,740만명을 기록
-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난징, 우시, 바탐, 구이양, 콜롬보, 양저우,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충칭, 페낭에서는 푸켓, 칭다오, 쿠칭에서는 구이양 노선이 새로 추가되는 등 방문의해를 맞아 말레이시아의 국제공항 이용 및 노선 취향이 증가세에 있음

[자료 출처 : 현지 주요 언론 종합]

- 중동 갈등 여파로 산업계는 코로나19 시대 수준의 지원 정책 도입 요구
<https://www.thestar.com.my/news/nation/2026/04/02/revive-covid-19-era-support-measures-say-businesses>
- 관광청, 방문의해 관련하여 필하모닉홀 및 오케스트라와 파트너십 체결
<https://www.nst.com.my/lifestyle/groove/2026/04/1408263/showbiz-dfp-mpo-team-tourism-malaysia-more-exciting-showcases>
- 관광기업 Golden Destinations 상장 후 안정적 성장 예상
<https://www.nst.com.my/business/corporate/2026/04/1410589/listing-bound-golden-destinations-set-steady-earnings>
- 말레이시아항공 중국 2개 도시 신규 취항 및 일본 후쿠오카 노선 재개 등
<https://www.nst.com.my/business/corporate/2026/04/1409434/malaysia-airlines-expands-china-network-adds-shenzhen-changsha>
- 슬랑오르주, 고유가 대응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 개시 및 해외출장 중단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11915/amirudin-selangor-implement-work-home-policy-april-15>
-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사업, 2027년 말까지 연장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13154/updated-visit-malaysia-year-2026-extended-until-end-next-year>
- 디젤유 가격 상승으로 운송 업자 폐업 위기 호소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regional/2026/04/1412093/east-coast-tour-bus-operators-face-shutdown-over-diesel-price-hike>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12388/tour-bus-van-operators-seek-diesel-subsidy-costs-surge>
- 유가 상승으로 인해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 가격 인상 불가피
<https://www.thestar.com.my/news/nation/2026/04/13/fuel-price-hikes-prompt-tourism-package-adjustments>
- 내국인 동말레이시아 항공 여행에 대해 50링깃 보조금 지급 예정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17540/rm50-airfare-rebate-sabah-sarawak-flights-benefit-100000-malaysians>
- 관광부, 방콕-쿠알라룸푸르 외의 경로로 태국 항공 노선 확대 주장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16181/motac-urges-expansion-new-flight-routes-thailand>
- 술탄이스마일 공항 개선 후 한국 포함 장거리 노선 개설 기대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20630/itsip-runway-extension-ready-2027-poised-unlock-long-haul-travel>
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20482/refurbished-sultan-ismail-petra-airport-boost-asean-links-says-pm-watch>

- 말레이시아방문의해 연장에 따라 콘서트 등 라이브 이벤트 산업 지원 확대 추진

<https://www.nst.com.my/news/nation/2026/04/1423321/fahmi-more-incentives-concerts-vm2026-extended-2027>

<https://www.nst.com.my/lifestyle/groove/2026/04/1425188/showbiz-malaysia-strikes-chord-regional-concert-hub-rm172-billion>

- 페낭, 중동 갈등으로 취소된 국제행사 유치 의지

<https://theedgemalaysia.com/node/800725>

- Amal by Malaysia Airlines, 이슬람 성지순례 위해 110대 항공기 투입

<https://www.thestar.com.my/lifestyle/travel/2026/04/22/amal-by-malaysia-airlines-to-operate-110-flights-for-2026-haj-season>

-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1분기 이용객 전년 동기 대비 14.4% 증가

<https://www.nst.com.my/business/corporate/2026/04/1427282/klias-passenger-movements-grows-144pct-169mil-q1>